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마 07:01-06절)

왜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비판하여 빼내어야만 합니까?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 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의 본문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읽어 보면 앞의 다섯 구절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흐리멍텅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 상식적인 비판을 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세우는 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비판력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전한 비판력이 없게 될 때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 앞에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 진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개와 돼지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사람이 개이며 돼지입니까?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개와 돼지는 사납고 위험한 반 야생동물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죄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반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받아 들이지도 않습니다(고전2:14)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행1:8; 롬10:14)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개와 돼지처럼 반응하니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비방하며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할 때 사도들은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짓밟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는 많은 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두려움으로 잘 다루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